

Byzantine時代의 服飾에 關한 研究

—服裝 形態構成의 要因 解析—

金 玉 振

(全南大師大 家政教育科)

A study on the Byzantine Costume

—An analysis of constructional elements of the Costume Form—

Ok Jin Kim

College of Education Chonnan National University

Résumé

Le propos de la présente considération est de déceler le problème du costume au niveau de problème de l'art pur qui, comme dit Hegel, répond à un besoin primitif qui consiste à extérioriser et à concrétiser les représentations et les idées nées dans l'esprit humain.

Il va de soi que c'est une sorte de problèmes appartenants à la théorie générale du costume.

Mais il nous semble que chez nous on a négligé d'analyser les éléments du costume sous l'angle de cette extériorisation de l'idée esthétique que nous avons essayé de souligner.

Nous avons pris cette fois, pour un modèle de ce sujet, les costumes sous Justinien (527-565) de l'Empire byzantin.

I. 緒 論

服飾美學의 限界內에서 服裝의 概念을 定義한다면, 이는 人體를 싸는 物體 一切의 美學 形象이라 할 수 있다. 이 形象은 한 人間의 內在的 要素, 즉 한 낱 抽象에 不過한 한 個性의 여러 要素들의 複合體가 物質을 통해서 美的으로 形式化되어 이루어지는 結實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服裝은 人間 精神狀態의 가장 直接的인 表現과 外面化의 手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Hegel의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서 우리는 위의 論理를 더욱 確實하게 立證할 수 있을 것이다. —“藝術은 言語가 人間에게 그들이 생각하고 想像하고 느끼는 바를 서로 通話하고, 서로 理解하도록 貢獻하는 手段에 지나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로 精神 속에

생겨나는 생각과 表現을 外面化하고 具體化하는 원초적 欲求에 充足시켜 준다.”¹⁾ 나아가 René Hugh의 다음 表現을 따르면, 人間이 取하는 諸般 形式은 單純한 表現欲이나 裝飾의 次元을 훨씬 넘어서 存在에로의 意志가 담긴 것임을 알 수가 있다. —“形式을 取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構成한다는 것이요, 潛勢로 남아 있는 가능성이 星雲으로 부터 나오는 일이다. 그것은 不確實한 狀態, 虛無, 또는 非存在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끊임없는 威脅으로 부터 統一의 原理를 찾는 行爲이다.”²⁾

한편, G. Bachelard가 P. Valéry의 “人間과 조개”라는 글을 分析하면서 推理한 人間의 집에 대한 美的 欲求가 暗示하는 바를 適用하여, 人間의 服裝에 대한 思想을 推理해 볼 때, 우리는 그 속의 美的 理念에의 極限的 意志를 透視할 수도 있는 問題이다. —“이 때

軟體動物의座右銘은, 집을 짓기 위해 사는 것이지 살기 위해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그리하여 집은 그 속에 居住함을 꿈꾸는 일마저 讀聖行爲가 될 정도로 아름다운, 참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³⁾

그러나 위에 든 服裝構成의 動機로서의 人間의 個性이나, 美的 理念은 다른 藝術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實踐이나 表現에 있어 어떤 制約을 받고 있음은 勿論이다. 그 첫째는 人間의 被服着用的 原始的 動機인 自然環境의 干涉이요, 둘째로는 社會環境의 干涉이다. 따라서 어느 時代의 服裝을 論하건 우리는 그것의 實用性과 裝飾性的 兩面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社會環境의 干涉이란 곧 時代 精神의 表現이라 볼 때 위에 든 個人의 個性이나 그 美的 理念은 事實上 個人과 時代의 二元的 產物임을 前提해야 된다. 筆者가 Byzantine 服裝에 대한 解析을 試圖하는 本稿에서 歷史의 背景이란 章을 先行시키는 理由는 單純히 依例的, 補足的 意味에서가 아니고, 이러한 服裝의 內的 動機를 糾명한 다음 그것이 어떻게 表現되었는가, 곧 形式化되었는가를 살피기 위함이다.

다음 미리 言及해 두고 싶은 것은, 服裝美의 特徵은 어디까지나 視覺對象이라고 하는 基本原理에 主眼을 두어 이를 淨刻해 보려고 試圖해 보았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 筆者는 가령 “藝術作品은, 불려고 하는 欲望을, 혹은 더 正確하게 말하면 그 무엇을 바라 보기 위한 欲望을 充足시키기 위해서 人間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마즈이다.”⁴⁾라고 하는 René Huyghe의 말을 基本으로 삼아 보았다.

또한 本稿에서 다루려고 하는, 服裝이라고 하는 物質의 形式은 人間 內面的 精神世界의 表現이라고 하는 一般論的인 圖式을 다루는 일이 얼핏 無意味한 作業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豫見을 무릅쓰고 굳이 이를 試圖했음은, 이러한 一般論이 一般論 그것으로 그친 나머지 常識論으로 低下되고 따라서 輕視되고 이어서 志却되어가는 감이 있어서이며, 同類의 여러 對象中 筆者가 하필이면 Byzantine 時代中 特別히 初期의 全盛期인 Justinian 王朝(527-565)를 擇한 것은 特別한 理由에서가 아니라 作業上의 便宜를 따랐음에 불과함을 밝혀두는 바이다.

II. 歷史의 背景

東 Rome 帝國의 首都인 Constantinople을 古名으로는 Byzantium이라 하여 Byzantine이라고 名稱하게 되었

다. 古代 Rome와 異質의 文化라고 보는 것은 基督教가 國敎로 결정됨에 따라서 새로운 文化的 發展이 있었으며, 首都가 Rome에서 Constantinople에 옮겨짐으로 인해서 東方의 性格이 強해졌기 때문이다.

政治體制는 東方의인 帝王制가 強化되었다. 이 帝王制는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皇帝는 이제 神이 아니었으나, 神에 의해 支配하도록 任命된 것이고 그의 權力은 神的인 것이었다. 하늘에 단 하나의 神밖에 없듯이 地上에도 단 하나의 皇帝 밖에 있을 수 없다.”⁵⁾ 이 처럼 皇帝는 絕對的인 支配者였으며, “神의 直接代理者로서 皇帝는 Rome法의 傳統을 保存할 責任이 있었다.”⁶⁾

基督教는 政治, 社會, 外交 모든 生活面에 깊이 浸透되어 精神面을 支配하고 文化도 左右하게 되었다. 宗教의 精神世界가 얼마만큼 至大하였는가를 다음의 引用文에서 살피 보기로 한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의 生活에 있어서의 重要한 瞬間엔 언제나 敎會가 重要한 役割을 했던 것으로, 結婚과 家族關係를 맡아보고,……어떤 重大한 決定을 하는데 도움이 되어 주었다.”⁷⁾ 하며 “東方帝國의 最高聖職者인 Constantinople의 總主教가 때때로 皇帝에 挑戰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또 皇帝가 絕對的인기는 했으나, 敎會의 支持를 받지 않고 새로운 敎理를 떠맡기거나 民衆의 宗教的 感受性에 거슬리는 것을 할 수는 없었다. 이리키 때문에, 皇帝敎皇主義를 否定하고 「神政制」라는 말을 擇하는 學者들이 더러 있는 것이다.”⁸⁾

經濟的으로 豐富했음을 알 수 있다. 都市가 商業의 大中心地이므로 世界 各處에서 船舶들이 들어 왔으며 黑海沿岸의 地方에서는 毛皮·가죽·穀物·포도酒가 들어 오고 인도·세일론·시리아 및 아라비아에서는 香料·寶石 및 명주가 들어 왔다. “Byzantine 皇帝들도 한 때는 絹織物·紫色染色 및 金刺繡品의 製造와 販賣를 獨占할 수 있었으며, 이들은 奢侈品에 그치지 않고 東方에서나 西方에서나 敎會와 國家의 高官들의 絕對必須品인 것이다.”⁹⁾

藝術的 創造性이 至大함을 알 수 있다. Constantinople의 聖 Sophia 敎會堂(6世紀 建立)을 가르켜 「그와 같이 훌륭한 것은 아담 以來 일찌기 없었고 또 앞으로 도 없을 敎會」라고 讚揚했다. 그것을 지은 Justinian 皇帝는 “솔로몬이여, 나는 그대에게 이겼노라.”¹⁰⁾고 의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敎會建築이 神의 힘에 의해서 이룩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建築·그림 및 mosaic등의 大美術이 發達하였다. 絹織物·象牙彫刻·金銀細工·에나멜을 칠하고 寶石을

박은 冊 表紙, 특히 聖者의 거룩한 遺物을 간직하기 위하여 만든 精巧한 容器·聖스데핀의 거룩한 향가리야 王冠 등 “이들 모두가 Byzantine人의 創意가 限없 이 多彩롭고 豊富함을”¹¹⁾ 立證하고 있는 것이다.

Ⅲ. 服裝의 類型 解析

服裝에 있어서는 古代 Rome의 形態 위에 東方의 人 要素가 加해졌으며 豪華로운 裝飾으로 充滿되었다. 이 服裝 構成의 基本的 特性은 基督教의 精神世界의 影響에 의해서 左右되었다고 본다. 基督教은 現世의 人 人間의 肉體를 無關心하며 享樂을 否定하기 때문에, 古代 Greece나 Rome의 服裝처럼 自然스런 肉體美를 表現하는 것이 아니고 肉體를 감추는 樣式으로 表現되었다. 다시 말하면 現實의 身體性을 否定하는 “基督教精神은 「神은 光明이요, 光輝이다.」라고 하여 金銀이나 豪華로운 色彩를 現實의 人間觀으로 만들고 宮廷이나 寺院의 內部와 아울러 거기에 參集하는 信者들의 服裝도 豪華롭게 裝飾했다.”¹²⁾ 이러한 樣相은 6世紀頃의 Constantinople을 服飾界에 있어서의 世界的 王座에 있게 하고 “明瞭하게 새로운 점은, 皇族, 宮廷, 高位 聖職者의 服裝에 絹을 使用케 하여”¹³⁾ 上流階級層에 至上의 魅力을 갖게 하고, 豪華로운 織物과 裝飾品은 威嚴味를 表現하게 했다. 더욱이 “宗教感情이 高潮됨에 따라 豪華로운 服裝에의 欲求는, 마침내 絹織物業의 發達과 主產地에서 들어온 豊富한 寶石類, 이것에 대한 加工法과 熟達한 刺繡技術은 服裝을 華美하게 했다. 絹織物을 가진 貴族의 表情은 特히 上流階級の 趣味와 一致하여 莊嚴味의 威光을 表現케 했다.”¹⁴⁾ 그리고 色彩에 있어서는 宗教의 意味를 內包하고 있어 “白은 純潔, 靑은 神聖, 赤은 神의 사랑, 紫는 威嚴, 綠은 永遠한 젊음, 黃金은 善行, 薑은 謙讓, 밝은 黃은 豊富를 意味했다.”¹⁵⁾

1. 帝室의 服裝

가) 皇帝

Ravenna에 있는 聖 Vitale寺의 內部 성가대석 mosaic 畫의 Justinian帝는, 가끔 Rome 執政官의 toga, 가슴을 교차한 넓은 폭의 어깨걸이 trabea, 길은 紫色의 paludamentum, 紫色의 chlamys, 白色 絹의 tunic에 刺繡된 것을 입었다. 高貴의 象徴인 tablion을 chlamys 前面 허리에 붙였으며, 그것은 長方形의 裝飾으로 黃金色의 바탕에 赤色의 바퀴돌레로 되어 있고, 그 안에는 綠色의 새(鳥)무늬로 刺繡되어 있다.^{16,17,18,19)} (참조 Fig. 1.2 右 3번째(Justinian帝).



Fig. 1. Justinian and his court, 547 A.D.



Fig. 2. Justinian, Teodora his bishop. 522 A.D. (church of san Vitale, Ravenna, mosaic)

나) 皇后

Ravenna에 있는 Vitale寺 內部 mosaic 畫의 Teodora 皇后는 白色의 tunic, 黃金과 에나멜로 裝飾한 白色의 stola를 입고, 그 위에 紫色의 paludamentum을 입었다. 絹布에는 刺繡가 加해져 있으며, paludamentum 下段에는 人物畫로 裝飾되어 있고 tablion이 달려 있다. Teodora皇后는 가장 豪華한 裝飾을 했으며, 寶石이 數萬個가 裝飾된 冠, 목거리를 하고 있다.^{17,18,19,20,21,22)} (참조 Fig. 2, 右 1번째, Fig. 3. 中央(Teodora 皇后) 다. 廷臣

tunic 위에 半圓形의 mantean인 paludamentum을 입고 있으며, paludamentum의 左前에 長方形의 tablion이 붙어 있고 거기에 刺繡로 裝飾되어 있다.^{19,23,24)} (참조 Fig. 1. Justinian帝 左 2人의 廷臣, Fig. 3. Teodora皇后 左 2人의 廷臣)



Fig. 3. Empress Teodora and suite 547 A.D.



Fig. 4. Diptych of Magnus 518 A.D.

라. 執政官

Paris에 있는 메달 진열실(cabinet des medailles)의 執政官은 tunic에 刺繡의 bend를 하고, toga picta, 혹은 palmata를 입고 있으며, 刺繡가 더해져 있다.²⁵⁾(참

조 Fig. 4).

마) 宮女

dalmatica 위에 身分의 象徵인 pallium을 입고 있다. 또는 belt를 매는 palla, 긴 manteau, tablion이 붙은 긴 tunic도 입었다.^{18,20,21,23,24)}(참조 Fig. 3. Teodora 皇后 右편으로 열을 지은 宮女들).

2. 聖職者의 服裝

가. Christ와 天使

Ravenna에 있는 聖 Vitale寺의 後陣 半球體 天井을 裝飾하는 mosaic畫. 基督教의 藝術이 寺院內를 裝飾하는 경우 効果的으로 利用되는 宗教 主題의 하나. Christ는 2人의 大 天使들에 의해 神의 創造物을 象徵하는 靑의 天鰲 위에 앉아 있다. Christ와 天使들도 dalmatica위에 pallium을 입고 있다.^{26,27)}(참조 Fig. 4. 中央(Christ), Christ兩쪽(天使)).



Fig. 5. Christ and Angel, 547 A.D.

나) 聖 Michael

Ravenna 聖 Apollinarein-Classe의 mosaic畫. 聖 Michael은 tunic, chlamys에 tablion을 붙여 입고 어깨에 buckle로 고정시켰다.²⁸⁾(참조 Fig. 6)

다) 主教와 副祭

Maximian 大主教는 stola에 pallium을 걸치고 있으며, 副祭는 band가 있는 tunic을 입고 있다.^{19,21,25,26)}(참조 Fig. 1. 右 2번째(Maximian), 右 1번째(副祭), Fig. 2. 右 2번째(Maximian)).

라) 殉教女

Ravenna의 聖 Apollinare Nnovo寺의 豪華로운 mosaic畫. 22人의 殉教女 行列의 女子들은, 服裝에 있어서 趣向에 따라 약간의 差異를 가지고 있다. tight한 소매의 tunic 위에 白色 stola를 입고 있으며 거기에는 黑色과 金色으로 裝飾을 했다. 그 위에 아름답게 보이는



Fig. 6. st, Michael 536-547 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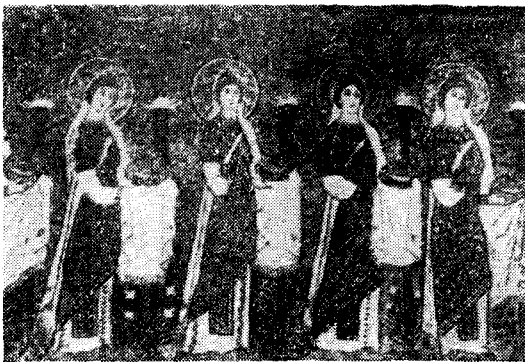


Fig. 7. st Cecilia, 6 A.D.

penula를 걸쳐고 있으며, Byzantine風의 belt를 매고 있다. stola의 中央에 가늘고 긴 bend를 매고 있으며, 이것을 가르켜 patagium이라 하고 紫黃金으로 配色되어 있다. 이러한 樣相은 豊富한 光輝를 發現하는 感性을 가지고 있으며, 그 容貌은 個個의 生命感을 간직하고 있다.^{29, 30, 31)}(참조 Fig. 7)

3. 市民의 服裝

Byzantine의 豪華로운 服裝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밝힌 바이지만, 一般市民의 服裝에 있어서는 상세한 記錄의 文獻과 實物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具體的인 것을 알 수 없으나, 6世紀에 널리 보급된 것은 草原地帶 民族의 服裝인 tunic과 긴 바지이다.³²⁾

V. 結 論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Byzantine時代의 Justinian皇帝의 治代는 “그 有能한 婦人 Teodora皇后에 의해서, 非凡한 精力과 野望을 가진 政治의 手腕에 의해서 이루어되었다. 大學의 創設, Rome法典의 大成, 聖 Sophia寺院 등의 建設, 6世紀半에는 中國에서 蠶桑을 輸入하여 國內에서 絹織物工業을 시작했다고 傳해지며, 國家經濟 發展을 圖謀했다.”³³⁾ 이와 같이 政治, 經濟, 文化, 藝術 등의 分野에 있어서의 貢獻은 至大하다. 한편으로는 基督教의 宗教世界의 影響에 있어서 建築, 服裝의 藝術文化에 燦爛한 貢獻을 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基督教의 本質은, “內在的 精神的인 것에 있기 때문에 人間의 不淨한 姿勢를 現世에서 嫌惡하여, 한결 같이 神聖化하고 禮讚했다. 超人間的인 姿勢에 있으므로 人間의 精神的인 欲求를 滿足케 했다. 한편으로는, 神權崇拜의 東方思想과 相通한 점이 있었다. 그리하여 東方의 思想을 求하기 위해서 光澤이 있는 織物, 濃厚한 色彩로 mosaic, 寶石細工, 金銀細工이 發達하였다.”³⁴⁾ 이러한 樣相은 人間의 根源的인 美的 欲求充足을 할 수 있을 뿐더러, 服飾에 의해서 豪華燦爛한 光輝를 發揮하므로써 神에게 榮光을 돌리는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內在的 精神世界가 그들에게 內在되어 있기때문에 그 豪華燦爛한 服飾美를 具現했다고 본다.

그러므로 服裝은, 外形的 形式의 하나이나 그 外形的인 形式을, 즉 形態構成을 갖게 하는데 있어서는 內在的 精神世界의 影響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內面的인 要因에 의해서, 人間의 欲求充足을 위해서 行해지는 形式임을 立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服裝은 內面世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形式이지만, 이 內面世界는 抽象이기 때문에, 그 抽象을 形式化하기 위해서는, 着裝者 自身의 全部를 表現하는 手段으로써, 身分階級에 따라 身分이 높은 者일수록 修飾을 더 많이 함으로써 自身이 表現하고자 하는 「이미즈」가 傳達되리라 본다.

그러므로, Byzantine時代의 基督教 精神世界 및 그

體制의 身分을 表現하기 위해서는, Byzantine 時代의 服裝은 豪華로 있던 것으로 看做된다.

6世紀頃 Byzantine 時代의 代表的인 服裝의 類型을 들면, 身分 높은 者가 입었던 palmdamentum과 toga, tunic, chlamys, dalmatica, stola, penula, palla 등이고 身分의 象徴인 tablion, pallium 등이 있다.

引用文獻

- 1) Hegel, *Esthétique*, Aubier-Montaigne, Paris, Vol. 6, 41, 1964.
- 2) René Huyghe, *Formes et Forces*, Flammarion, Paris, 44, 1971.
- 3) G. Bachelard, *La Poétique de l'espace*, P.U.F., Paris, 103, 1974.
- 4) op. cit., 26.
- 5) Crane Brinton, *A History of Civilization*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60) : 梁秉祐外譯, 世界文化史, 乙酉文化社, 서울, 上, 336, 1963.
- 6) *ibid.*, 338.
- 7) *ibid.*, 342-343.
- 8) *ibid.*, 345.
- 9) *ibid.*, 333.
- 10) *ibid.*, 326.
- 11) *ibid.*, 327.
- 12) 元井能, 西洋被服文化史, 光生館, 東京都, 32, 1959.
- 13) François Boucher, *Histoire du Costume*, Flammarion, Paris, 152, 1965.
- 14) 丹野郁, 西洋服飾發達史, 光生館, 東京都, 古代・中世編, 135, 1965.
- 15) *ibid.*, 137.
- 16) cf., *ibid.*, 143.
- 17) cf., François Boucher, 150.
- 18) cf., Max Tike, Wolfgang Bruhn, *Encyclopédie du Costume*, Albert Morancé, Paris, 24, 1955.
- 19) cf., Millia Davenport, *The Book of Costume*, Crown Publishers, New York, 85, 1970.
- 20) cf.,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Harper & Row, Publishers, New York, 130-131, 1965.
- 21) Ludmila Kybalová et Coll., *Encyclopédie Illustrée du Costume et de la Mode*, Gründ, Paris, 88, 1970.
- 22) 元井能, 34.
- 23) cf., François Boucher, 151.
- 24) cf., op. cit., 34.
- 25) cf., Millia Davenport, 81.
- 26) cf., 丹野郁, 144.
- 27) cf., 世界美術全集, 平凡社, 東京都, 中世, I, 256, 1957.
- 28) cf., Millia Davenport, 82.
- 29) ct., 丹野郁, 141.
- 30) ct., op. cit., 255-256.
- 31) ct., Blanche Payne, 130.
- 32) ct., François Boucher, 148.
- 33) 丹野郁, 133.
- 34) *ibid.*, 132-133.